

# 禪味 응축된 시구... 마음공부의 단계 보여

## 불교로 읽는 古典

### 소동파의 詩選



박만규 동덕여대 중문과 교수

불교 선종의 1700공안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화두는 '뜰앞의 잣나무(庭前柏樹)가 아닐까 싶다. 이 화두의 주인공은 조주 종심(趙州 從心) 스님이다.

어느날 조주(趙州·지금의 허북성 조현)의 조왕(趙王)이 조주 스님을 찾아 불법을 배우고자 방문한다.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누운채로 당대의 최고 권력자에게 한다는 말이 "중노릇 하느라 풀만 먹었더니 영양상태가 잘 안좋아요. 게다가 늙기까지 해서 일어나 영접하질 못하니 면목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조왕은 이를 듣고 화내지 않고 선사의 법력에 존경의 예를 올리고 돌아가시는 장군인 사람을 시켜 으리으리한 금은보화를 싣고 가서 스님께 공양하게 한다.

장군이 사찰에 온다는 말을 들은 조주 스님은 절 문 앞에까지 나가서 예를 다해 장군을 영접하고 공양물을 받는다. 이를 본 문하 제자들이 제왕이 왔을 때는 누워 손님을 맞고, 장군이 오니 영접하는 스승을 비판했다.

이에 조주 스님이 답하길 "상등인(上等人)이 오면 누워서 맞는데, 그건 본래면목을 가르치려는 것이고, 중등인(中等人)이라면 접객실에서 맞이하고, 하등인(下等人)이 온다면 문 밖까지 나가 극진하게 모셔오지, 그건 세간의 법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얼른 봐서는 차별이 있는 듯한 스님의 처신이지만, 이는 어느 누구나 갖고 있는 자성을 깨우쳐주려는 수승(殊勝)한 가르침이다. 불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평등공법이니까.

소동파(蘇東坡, 1036~1101)를 이야기 하면서 조주 스님의 일화를 먼저 소개하는 것은 그가 유학을 바탕으로 불가와 도가의 철학을 섭수하고 있기 때문이며 함께 소개할 그의 일화에도 연계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유가사상은 소동파로 하여금 끝까지 관직을 지키며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도가사상과 불가사상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쓰러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주는 버팀목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항주(杭州)에서도 이름난 금산사(金山寺)의 불인(佛印)선사를 찾아가 여러 차례 불

연(佛緣)을 맺은 바 있는 소동파는, 정통 유학자로서 불교에 대한 우월감으로 범거랑을 시도한다. 먼저 편지를 보내 어느 날 아무 때에 금산사를 방문할 터인데 옛날 조주 스님이 조왕을 대접했을 때처럼 해달라고 요청한다.

소동파가 금산사에 도착하니, 불인 스님은 산문 밖에서 조아리고 있다. 이에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한다. "스님의 공부는 도저히 조주스님의 법력에 미치지 못하고, 나오지 말라고 말해 뒀는데도 이렇게까지 멀리 나와 있으니 권력이 무섭긴 한가 보오. 스님이 닦은 선정지혜(禪定智慧)도 별 것 아니요."

평생을 쏟아 부은 유학에 큰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 선사의 법력을 별 것 아니라고 자기 식견으로 확인했을 때 꽤나 뿌듯했을 것 아닌가. 이에 조용히 읊조리는 스님의 계승 한 수는 이렇다.

"그 때 조주가 머리를 덜 숙였지, 문 밖에 나와 조왕을 맞지 않았거든. 어찌 금산사의 무량무변한 법상(法相)을 알겠는가, 이 몸 에겐 삼천대천세계가 이부자리인데!(當日趙州少謙光, 不出山門迎趙王. 爭似金山無量相, 大千世界一禪床.)"

### 불교의 禪에 심취한 소동파 당대 선사들과의 교류 통해 마음공부 시로 감동적 표현 문학세계 더욱 응송 깊어져

또 하루는 불인 스님이 설법을 하려 하자 소동파가 시간에 맞춰 찾았다. 하지만 자리가 없었다. 불인 스님은 소동파에게 "자리가 꼭 차서 나오리 앉을 곳이 없습니다"고 말하자, 소동파는 곧 "앉을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스님의 사대오문(四大五蘊)을 깔고 앉을 수 밖에 없군요"라고 쓰아붙였다.

스님이 듣기에 소동파가 선문답으로 나름으로의 선기(禪機)를 보이므로, "나오리, 내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을 맞으면 내 몸뚱이를 깔고 앉도록 드리고 답을 맞지 못하면 황제가 내린 그 옥대(玉帶)를 풀어 놓고 가시오." 소동파가 알겠다고 승낙하자 스님은 서릿발 같은 일갈을 내놓는다. "사대(四大)는 본래 공(空)하고, 오문(五蘊)은 없는 것인데, 나오리 앉을 곳이 도대체 어디란 말이지?"

천하의 기재(奇才)인 소동파라 하더라도 깨달음에 이르러야 알아들을 수 있는 화두를 앞에 두고는 그냥 말문이 막혀 버린다.



대만 불광산사의 벽화. 소동파와 불인 스님과의 인연담을 그렸다. 앉은 모습이 서로 어떨나고 묻자 선사는 소동파를 부처로, 소동파는 선사를 소의 똥 같다고 말했다. 이후 소동파의 누이가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본묘의 눈에는 본묘가 담긴다"고 소동파를 비판했다.

그 때 벗어난 옥대가 1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금산 강전사 유옥루(留玉樓)에 류옥석(留玉石)이라는 보물로 내려오고 있다. 이후 소동파는 이때 충격을 이렇게 시로 썼다.

百千燈作一燈光  
은 세상 이치 한 등불로 비추니  
盡是恒沙妙法王  
모든 알음알이 부처님 손안에 있소.  
是故東坡不敢惜  
이 가르침 받았으니 아까와 하지 않으려오  
借君四大作禪牀  
스님 육신 빌어 앉을 자리 삼으려 했으니  
病骨難堪玉帶圍  
병든 몸에는 무겁기만 한 정승 옥대 더 매곤 못 다니겠소.  
鈍根仍落箭鋒機  
둔한 머리 날카로운 화두에 그만 찔리고 말았소.

송나라의 제일 가는 학자의 항복을 받은 불인 스님 역시 유학자 소동파의 세간법도

로 화답한다.  
石籟奪取袈裟  
석상스님이 정승의 흉(胸)을 빼앗은 것이  
三百年來兼口誇  
삼백 년 동안이나 인구에 회자되고 있소  
爭似蘇公留玉帶  
소공이 옥대를 놓고 온 것 꼭 같구려  
長和明月共無瑕  
長和明月共無瑕  
영원히 저 맑은 달같이 빛날 일이오.

또 어느 하루는 소동파는 금산사에서 스님과 좌선했다. 입정(入定)한 뒤 곧 온 몸이 날아갈 듯 기쁨을 느끼게 된 그가 불인 스님에게 이렇게 자랑한다. "스님, 제가 참선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잠입하기가 불상 같오." 동파 선생이 몹시 흡족해 한다. 곧이어 스님이 되묻는다. "내 앉은 모습은 어떠하오?" 이 때다 싶은 동파 선생, "짜 놓은 똥 한 덩어리 같습디다." 스님도 빙그레 웃는다.  
스님을 똥 덩어리라고 욕하고 나니 마침

내 통쾌하게 설욕했다는 마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내 늘 스님께 족였는데, 이번엔 내가 이겼소!"하고 자랑 삼아 얘기한다. 이 말이 드디어 누이동생 소소매(蘇小妹) 귀에게 들려간다. "오빠가 어떻게 해서 스님을 이겼다고요?" 신이 나서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하는 오빠에게, "오빠가 졌어, 아주 참혹하게 졌네! 불인 스님이 공부 부처를 이미 이루었기에 오빠를 보고 불상 같다고 했는데, 오빠 마음공부는 소 똥 같으니가 똥 덩어리 같이 보이는 것 아니오?"

보는 것만큼 보는 것이고, 아는 것만큼 알아지는 것이다. 알고 보고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제 눈으로 보고 제 맘대로 여기는 만큼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네 범부중생의 세간 살이다.

머리로 알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은 지식과 총기(聰氣)의 쓰임(用)이다. 더 깊은 바닥에는 우리의 본래면목인 불성(佛性)이 있다. 너도 나도, 배웠던 못 배웠던,

유생무생(有生無生)의 그 깊디 깊은 내면에는 두두물물, 삼천대천세계의 뿌리인 한마음 주인공이 있다. 일체의 일체가 거기에서 나고 거기로 든다.

이른바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歸何處)의 본래소식이다. 이 소식을 참구하는데 온 몸을 던진 수행남자들은 일생을 건다. 이렇게 해서 눈 뜬 세계라 해도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따름이다. 그러나 그 세상은 이전 말과 글이 끊어진 자리이다. 그냥 말로서 일컫는 개오의 경지일 따름이다. 둘이 아닌 하나, 한마음(不二法門)의 무문관이다. 안다 모른다가 일어나기 이전의 우리의 본래 고향이다.

소동파는 이 오묘한 선미(禪味)에 크게 느낀 바 있어, 그 뒤로의 작품에서는 아주 격이 다른 글을 쓴다. 소동파의 시집 <소식전집(蘇軾全集)>에는 마음공부의 단계가 잘 담겨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마지막 공부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 한 수를 살펴보자.

溪聲盡是廣長舌  
우렁찬 계곡물 소리 모두 부처님 설법이오.  
山色無非清淨身  
눈에 보이는 모습 여래정신이라네.  
夜來八萬四千偈  
밤새 중생 일깨우는 팔만대장경 범문을  
他日如何舉似人  
훗날 누가 있어 중생들에게 알려 주리오.

팔팔 솟아 내리는 거센 개울물 소리는 부처님 옥음(玉音)일세. 부처님 32호상 가운데 27상이 '혀가 크고 길뿐 아니라 부드럽고 가는다란(舌廣而長, 柔然細薄)' 좋은 발생조건을 가졌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이 공극의 불법(佛法)을 우리에게 길이 설하신다. 이 우주법계 온갖 것이 부처여래정정법신(淸淨法身)의 나뭇잎 줄 알겠고, 중생 잠든 깊은 밤에도 저리도 대자대비한 법음을 끝없이 설하고 계심을 내 이제 알겠는데, 이 말로 할 수 없는 구경 경지(究竟境地)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 줄 수 있을까.

위대한 지성의 소유자였기에 뛰어난 깨달음을 필요로 하는 불교적 깨우침에 소동파는 남보다 더 쉽게 다가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죽음을 무는 제자에게 "사람 사는 세상도 모르면서 죽음을 알려하느냐"고 호되게 꾸짖는 공자의 학문을 정통으로 이어 받은 소동파가, 무위이위(無爲而爲)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크게 죽는(大死一番) 마음공부에 맛을 들임으로써 그의 경지는 범이 날개를 다는 헝국의 대비약을 한다.

선가에 내려오는 말 아닌 말이 있다. 생로병사를 무찌르는 죽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난 반드시 크게 한 번 죽지 않으면 안된다.(欲得人不死, 須得死個人)

##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약사선원 010-2766-7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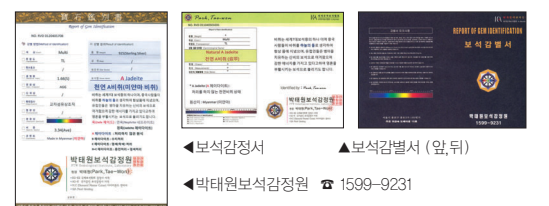
북한산 국립공원 올레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비취란?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격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